

##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갈등해결전략의 이중매개 효과

고 은 영<sup>†</sup>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김 미 경

경희대학교 심리상담연구소  
과장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인지적 측면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행동적 측면인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거부민감성 모델의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소재 대학 대학생 668명(남 232명, 여 436명, 평균연령, 21.59세(SD=2.08))을 대상으로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중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과 갈등해결전략 중 통합과 타협 전략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 만족과 직접적인 부적인 상관을 보여 거부민감성이 높을 경우 이성관계 만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초점을 확대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서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통합과 타협의 갈등해결전략을 통해 이성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에 대한 함의와 개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 이성관계 만족, 인지적 정서조절, 갈등해결전략, 대학생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고은영, 우석대학교, 충북 진천군 대학로 66  
E-mail: key5414@gmail.com

이성교제는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대학생 시기의 발달 과제인 친밀감 형성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Erikson, 1971; Furman & Shaffer, 2003). 만족스러운 이성교제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심리적인 문제를 덜 경험할 뿐 아니라 위험행동도 적게 나타나고 문제가 되는 이성교제를 경험할 경우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문제가 되는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한다(Braithwaite, Delevi, & Fincham, 2010; Karney & Bradbury, 1995; Weiss & Heyman, 1997). 또한, 이성교제의 성공적 경험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결과를 예측하게 하며 불안정한 갈등상황을 겪는 이성교제 경험은 결혼 후 적응에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게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Kelly, Huston, Gate, 1985; Markman, 1981). 서울 시내 12개 대학의 학생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는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 중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언급된 문장을 추출해 불안의 요소를 분석한 결과 연애가 불안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박소영, 2017). 이처럼 이성관계는 그 기능이나 적응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자유로운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대학생 시기는 성인초기에 책임 있는 관계 경험을 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로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이다.

만족스러운 이성관계 형성에 있어 상대방이나를 받아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기대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개념으로 '거부민감성'을 들 수 있는데, 거부민감성이란 타인과의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 자신의 경험을 거부로 인식하는 거절의 부호화, 그와 관련한 정서적 경험이 상호 영향을 주는 역동적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다(Adyuk et. al, 2000). 즉,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타인의 행동을 거절로 인식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인지적-정서적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애관계 경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여 상대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가졌을 것으로 보고 상대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가 거부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강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위협과 관련한 단서에 자동적으로 반응한다(Metcalfe & Mischel, 1999).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개방하고 소통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상대를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표현을 억제하며 자신을 희생한다(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Dodge & Someberg, 1987; Impett, Gables, & Peplau, 2005). 따라서, 이들은 이성관계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 만족도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Downey & Feldman, 1996;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이처럼 거부상황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방어적 동기화 체계로서의 거부민감성은 거절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며 이후의 거부에 대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Downey, Mougios, Ayduk, London, & Shoda(2004)의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거부와 수용에 관한 그림을 보여주고 반응을 비교

했는데, 거부민감성에 상관없이 뇌도(insula)와 같은 정서 처리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좌 외측 전전두엽(left lateral prefrontal cortex)의 특정 영역이 더 많이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부분은 인지신경과학 연구에서 추상적 사고와 추론을 담당하며, 사회인지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부분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은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인지과정 또는 정서조절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관련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관련하여 거부에 대한 기대 같은 인지적요소와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Preti, Casini, Richetin, De Panfilis, & Fontana, 2018), 거부민감성 모델(Levy, Ayduk, & Downey, 2001)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주요한 타인의 모호한 행동을 거부로 인식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쳐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에 바탕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인지적 정서조절은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보를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방법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인지 혹은 인지적 과정은 정서와 감정을 관리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정서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는다. Garnefski 등(2001)은 특정한 인지적 처리가 정서를 조절하는지, 조절한다면 어느 정도나 조절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총 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적으로 '더 적응적인 것'과 '덜 적응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Garnefski 등, 2001).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받아들이는 '수용'을 비롯해 현재의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바라보는 '조망확대', 부정적인 일에 몰두하고 침습하는 대신 즐겁고 긍정적인 일을 생각하는 '긍정적 재초점', 부정적인 사건에 매몰되기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 나갈지를 생각하는 '계획다시 생각하기',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해 내려고하는 '긍정적 재평가'의 다섯 가지 전략을 적용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보았다. 반면, '자기비난', '파국화', '타인비난', '반추' 등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보았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정서조절을 통해 사람들은 위협적인 경험이나 스트레스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나 혹은 겪은 후에 그와 관련한 정서를 통제할 수 있게 돕는다(Garnefski & Kraaij, 2007). 이러한 맥락에서 거부를 지각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이성관계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연애관계 만족도에 긍정적 결과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박영은, 2017; 이철아, 박기환, 2013; 황여주, 2013).

타인의 거부에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지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실제 반응 방식은 영향을 받는다. 거부민감성 모델에(Levy, Ayduk, & Downey, 2001) 따르면 이전에 경험했던 거부경험으로 인해 타인의 거부에 민감하게 될 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을 거부 행동으로 부호화하는 인지 정서적 정보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같은 인지적

과정을 거쳐 철수, 회피, 적대감 표출과 같은 직접적 행동이 반응으로서 나타난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는 인지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염려를 하는 등의 인지적 평가를 통해 다양한 갈등 해결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Rahim & Magner, 1995). 정서조절 과정모델에서도(Gross, 2015)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인지적인 변화를 거쳐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연인관계라면 갈등상황이 발생하여 민감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면 정서를 자각하고 인지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인이 거부할 것이라는 지각이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주로 갈등상황일 것이다. 갈등상황에서 개인은 취약해지고, 그러한 취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반응하는가는 갈등을 극복하여 더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부부들은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커플이나 부부들보다 더 높은 관계 만족을 보인다(Leggett, Roberts-Pittman, Byczek, & Morse, 2012; Scheeren, Vieira, Goulart, & Wagner, 2014; Wheeler, Updegraff, & Thayer, 2010). 반면, 부정적 갈등 해결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연인 또는 배우자와 가족의 안정된 관계가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이혼에 이르는 등 가족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끈다(Birditt, Brown, Orbuch, and McIlvane, 2010; Lantagne, Furman, & Novak, 2017; Leggett et al, 2012; McNulty & Russell, 2010). 이 같은 결과

를 통해 갈등해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관계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도와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타인의 거부에 민감한 사람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침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성관계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선, 노안영, 2018).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갈등해결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관계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과정이 다양한 갈등해결 전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어떠한 갈등해결 전략이 거부민감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영향을 받아 관계만족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Rahim과 Bonoma(1979)는 다섯 가지의 갈등해결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 갈등해결 전략은 두 가지 차원에 기반하여 제안되었는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를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회피, 지배, 양보, 통합, 타협의 다섯 가지 갈등해결 전략을 제안하였다. 회피전략은 갈등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장도 강하게 주장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기대도 들어주지 않는 전략이다. 지배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요구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전략이다. 양보는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욕구에 순응하여 상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전략이다. 통합은 상대방과 자신의 욕구를 모두 충족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문제에 대해 직면하고 토론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는 등 양편 모두 강도 높은 개입을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타협은 자신과 타인의 기대를 중간 정도로 충족하도록 조율하는 전략으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대충족 보다는 각자 합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조율하는 전략이다(Rahim, 2002). 이 같은 갈등해결 전략은 연인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된다. 이성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경우 이성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조재숙, 2017), 회피 전략과 유사한 자기 침묵 갈등해결 전략은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이민선, 노안영, 2018).

이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인 인지적 정서조절과 행동적 요인인 갈등해결 전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대학생의 만족스러운 이성관계에서의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거부민감성은 이성관계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소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매개할 것이다.

셋째,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소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행동적 요소인 갈등해결 전략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지역 K대학 재학생 668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총 13,696명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775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연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07명은 제외하고 668명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연애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자료를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실제 연애상황에서의 경험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232명(34.7%), 여성 436명(65.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59세( $SD = 2.08$ )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133명(19.9%), 2학년 158명(23.7%), 3학년 164명(24.6%), 4학년 213명(31.9%)이었으며,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464명(69.5%), 자연계열 93명(13.9%), 의·약학계열 76명(11.4%), 예체능계열 35명(5.2%)이었다. 응답자 중 현재 연애 중인 사람은 393명(58.8%), 현재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 275명(41.2%)이었다. 현재 연애를 하는 사람 중 애인과 교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156명(23.4%)이었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이 68명(10.2%),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이 128명(19.2%), 3년 이상인 사람이 40명(6.0%)이었다. 총 연애 경험 횟수는 1회 194명(29.0%), 2회 170명(25.4%), 3회 128명(19.2%), 4회 이상이 172명(25.9%)이었다.

## 측정도구

###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Downey & Feldman(1996)이 개발하고 이복동(2000)이 번안,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

상생활에서 부모, 교수, 친구, 연인, 잠재적 연인 등 중요한 타인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는 18개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상황마다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까봐 불안한지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는지를 평가하며, 이에 대해 6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기대 점수는 역코딩한 뒤, 각 상황에 대한 불안 점수와 기대 점수를 곱하여 합한 뒤 18로 나눈 값이다. Downey & Feldman(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3 이었으며,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87,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 인지적 정서조절

인지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김소희(2004)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일이나 불쾌한 일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적응적 전략 5가지와 덜 적응적인 전략 4가지로 구분되는데, 적응적인 전략 하위요인으로는 '조망확대(putting into perspective)', '계획 다시 생각하기(refocus on planning)', '긍정적 초점 변경(positive refocusing)',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 '수용(acceptance)', 덜 적응적인 전략 하위요인으로는 '반추(focus on thought/rumination)', '자기비난(self-blame)', '타인비난(blaming others)', '파국화(catastrophizing)'가 있다. 각 하위요인은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점 = '거의 그렇지 않다', 5점 = '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 보고한 신뢰도는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 .87,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79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90,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83으로 나타났다.

#### 갈등해결전략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시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Rahim(1983)의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II(ROCI-II)를 Wilmot과 Hocker(2001)가 수정하고 홍종배(2006)가 번안한 것을 박희경(2011)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희경(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인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평정하게 하였다. 이 척도는 회피, 지배 타협, 양보, 통합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1점 = '매우 드물게', 5점 = '매우 자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에 해당하는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홍종배(2006)의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87 이었으며, 박희경(2011)의 연구에서는 .8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8로 나타났다.

#### 이성관계 만족도

이성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성, 한덕웅(2003)이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관계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을 이경성, 한덕웅(2005)이 결혼 전 관계에도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 이경성, 한덕웅(2005)

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각 효과의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으로 확인하였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23.0과 AMOS version 23을 사용하였다. 먼저 신뢰도 분석을 통해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다.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변인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9요인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이때, 문항 꾸러미 방식은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중에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과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들을 함께 묶어주는 방식이다(김수영, 2016). 이와 같은 문항꾸러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 문항 꾸러미들 간에 공통분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문항 꾸러미들간의 신뢰도가 증가된다. 또한 (2) Likert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을 문항 꾸러미들로 만드는 경우, 문항 꾸러미는 개별 문항보다 연속형 자료에 더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정규성 가정을 더 잘 만족하게 된다. 이 밖에도 문항꾸러미 방법을 사용하면, (3)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통계적인 추정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Bandalos, 2002).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변수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거부민감성에서 연애 만족도에 이르는 각각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는 Bias-corrected bootstrap 방법을 사용

## 결 과

### 기술통계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살펴본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잠재변인 간의 상관은 표 1과 같다. 잠재변인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은 이성관계 만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r=-.44, p<.01$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r=-.47, p<.01$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44, p<.01$ ). 또한, 거부민감성은 다섯 가지 갈등해결 전략 중 통합( $r=-.42, p<.01$ ), 타협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r=-.33, p<.01$ ). 한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이성관계 만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r=-.21, p<.01$ ), 갈등해결전략 중 통합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r=-.21, p<.01$ ), 지배( $r=.42, p<.01$ ), 회피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19, p<.01$ ). 반면,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은 이성관계 만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r=.27, p<.01$ ), 갈등해결전략 중 통합( $r=.54, p<.01$ ), 양보( $r=.33, p<.01$ ), 타협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47, p<.01$ ). 마지막으로 갈등해결 전략 중 통합( $r=.22, p<.01$ ), 양보( $r=.26, p<.01$ ), 타협은 이성관계 만족과 각각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17, p<.01$ ).

표 1.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1	2	3	4	5	6	7	8	9	M	SD
1. 거부민감성	-	.47**	-.44**	-.44**	-.42**	-.08	-.33**	.02	.10	2.74	0.620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25**	-.21**	-.21**	-.01	-.07	.42**	.19**	2.40	0.771
3.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27**	.54**	.33**	.47**	-.06	.15	3.50	0.631
4. 이성관계 만족				-	.45**	.22**	.26**	-.17**	-.03	5.39	1.091
5. 갈등해결전략_통합					-	.56**	.88**	-.15*	.16*	3.72	0.668
6. 갈등해결전략_양보						-	.43**	-.35**	.63**	3.62	0.724
7. 갈등해결전략_타협							-	.03	.20**	3.61	0.593
8. 갈등해결전략_지배								-	-.13	2.52	0.823
9. 갈등해결전략_회피									-	3.12	0.747

주. N=668. \*p<.05. \*\*p<.00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에 대한  $\chi^2(df=288, N=688)$ 검정은  $\alpha<.05$  아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hi^2$ 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점을 가진다(우종필, 2012). 이에 다른 적합지수들을 살펴보면,  $\chi^2/df$ 은 3.91로 4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CFI는 .897, TLI는 .874로써 .9에 매우 근사하고, RMSEA는 .066(90% 신뢰구간=.062 ~.070)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및 직접효과 검증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역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적합에 대한  $\chi^2(df=288, N=688)$ 검정 결과는 측정모형에서와

동일하게  $\alpha<.05$  아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반면  $\chi^2/df$  은 3.91, CFI는 .897, TLI는 .874로써 .9에 매우 근사하였다. RMSEA는 .066(90% 신뢰구간=.062 ~.070)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직접경로는 그림 1과 같으며, 최종모형에서 외생잠재변수들은 내생변수인 이성관계만족의 변량 중 약 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기법을 통해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에서 복원추출하여 간접효과를 유의미성을 신뢰구간(95%)과  $\alpha=.05$  아래에서의 유의확률을 통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 보았다(Shrout & Bolger, 2002). 분석결과,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거부민감성은 통합전략을 매개하여 이성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부적효과를 나타냈으며( $B=-.42, p<.01$ ), 타협전략을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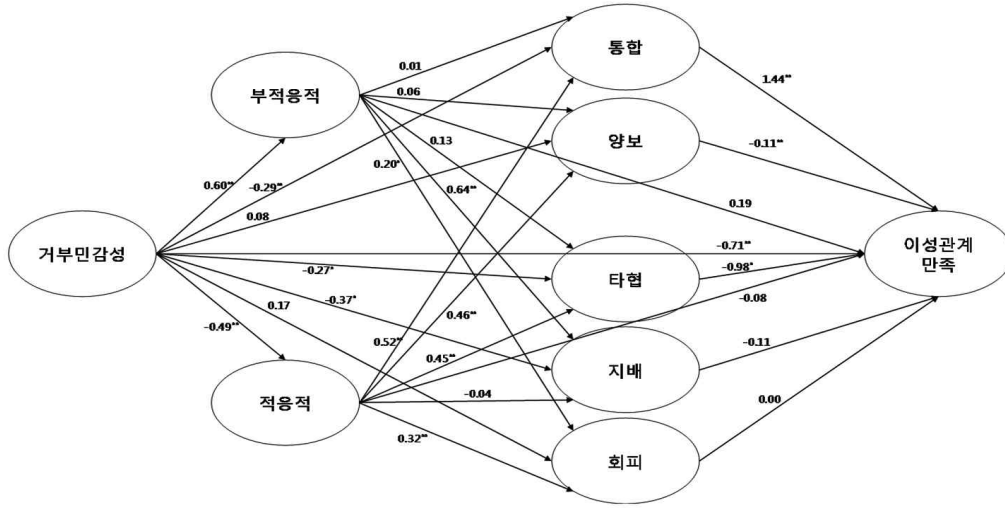


그림 1. 최종모형(비표준화 계수)

주.  $N=688$  \* $p<.05$ ; \*\* $p<.01$ . 부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적응적=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통합=갈등 해결전략\_통합. 양보=갈등해결전략\_양보. 타협=갈등해결전략\_타협. 지배=갈등해결전략\_지배. 회피=갈등해결전략\_회피

표 2. 최종모형에서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P	95% 신뢰구간 하한계-상한계
거부민감성 → 통합 → 이성관계 만족	-.42*	.382	.01	-1.26 -0.12
거부민감성 → 양보 → 이성관계 만족	-.01	.053	.84	-0.14 0.06
거부민감성 → 타협 → 이성관계 만족	.26*	.265	.02	0.04 0.94
거부민감성 → 지배 → 이성관계 만족	.04	.048	.36	-0.05 0.14
거부민감성 → 회피 → 이성관계 만족	.00	.049	.87	-0.06 0.15
거부민감성 → 적응적 → 통합 → 이성관계 만족	-.37*	.238	.00	-0.97 -0.17
거부민감성 → 적응적 → 양보 → 이성관계 만족	.02	.067	.46	-0.04 0.20
거부민감성 → 적응적 → 타협 → 이성관계 만족	.22*	.175	.01	0.07 0.66
거부민감성 → 적응적 → 지배 → 이성관계 만족	.00	.007	.78	-0.02 0.01
거부민감성 → 적응적 → 회피 → 이성관계 만족	.00	.033	.86	-0.08 0.04
거부민감성 → 부적응적 → 통합 → 이성관계 만족	.01	.099	.91	-0.13 0.23
거부민감성 → 부적응적 → 양보 → 이성관계 만족	.00	.020	.71	-0.05 0.02
거부민감성 → 부적응적 → 타협 → 이성관계 만족	-.08	.116	.07	-0.36 0.00
거부민감성 → 부적응적 → 지배 → 이성관계 만족	-.04	.052	.36	-0.14 0.06
거부민감성 → 부적응적 → 회피 → 이성관계 만족	.00	.031	.86	-0.04 0.07

주.  $N=688$

개하여서는 이성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B=.26, p<.05$ ).

한편, 거부민감성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통합전략을 이중으로 매개하여 이성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부적효과를 나타냈고( $B=-.37, p<.01$ ),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타협전략을 이중으로 매개하여서는 이성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정적효과를 나타냈다( $B=.22, p<.01$ ).

반면, 거부민감성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갈등해결전략을 이중 매개 하여서는 연애만족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이론에 기반하여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갈등해결전략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그 의미와 후속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거부민감성은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검증되었다.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은 부적 관계를 나타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 사이에 부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던 경험적 연구 결과들(김은지, 2016; 이민선, 노안영, 2018; 현소진, 2019)과 맥을 같이한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표현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도 이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파트너에게 더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어 파트너의 만족도도 감소시켜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Downey & Feldman, 1996;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과 관련하여 이성관계 만족, 긍정적 인지적 정서조절, 통합과 타협전략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을 경우 조망확대나 긍정적인 재초점화 등을 통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여 관련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통합, 타협 같은 적절한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낮아지며 이성관계의 만족도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이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만이 갈등해결전략과의 이중매개를 통해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이성관계 만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유효한 매개효과를 보인 경험적 연구들과(김지현, 2006; 황여주, 2013, 박나현, 2016) 맥을 같이한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라도 적응적 자기조절 과정을 거쳐 거부민감성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면 갈등상황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이성관계 만족에 관여함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이성관계 만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의미 있는 수준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높은 거부민감성이 자기비난이나 과묵화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거쳐 갈등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비교적 연애기간이 짧은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갈등상황에서 파국화나 반추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정서조절 전략 보다는 긍정적 인지조절전략을 활용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한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기존 결과들을 포함하여 고려할 부분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이성관계 만족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던 이민선, 노안영(2018)의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에서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매개 변수로 설정된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이성관계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처럼 혼재한 것은 두 번째 매개변수가 차이를 나타내서 일 수도 있지만, 인지적 정서조절 변수와 이성관계 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간 연구 결과가 혼재할 때, 두 변수 사이를 조절하는 조절변수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Baron & Kenny, 1986).

셋째,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요소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행동적 요소인 갈등해결전략(통합/양보/회피/지배/타협)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거부민감성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갈등해결전략 중 통합전략과 타협전략을 통해서 이성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갈등해결 전략에 따라 이성관계 만족이 영향을 받을 것

이라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갈등해결 전략은 통합과 타협이었다. 갈등해결 전략 중 통합전략은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도 일컬어질 만큼 두 사람 간의 적극적인 관여를 바탕으로 양편 모두의 목표를 상호 극대화 할 때 쓰이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De Dreu et al., 2001, Rahim et al., 2000). 한편, 타협 전략은 통합전략 만큼은 아니라도, 양쪽 모두 보통 정도의 관여를 하며 각자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상호 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Rahim et al., 2000). 두 가지 갈등해결 전략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지만, 영향을 미치는 방향은 차이가 있었다. 타협전략을 많이 사용할 경우 이성관계 만족은 적어질 것으로, 통합 전략을 많이 사용할 경우 이성관계 만족은 커질 것으로 나타나 갈등해결 전략의 종류별로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의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전략 모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전략이지만, 두 사람이 적당히 타협하는 정도로는 이성관계 만족감을 높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바탕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설득하고 논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상호 노력할 때, 서로에 대한 만족감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부부들은 더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커플이나 부부들보다 더 높은 관계 만족을 보인다(Leggett, Roberts-Pittman, Byczek, & Morse, 2012; Scheeren, Vieira, Goulart, & Wagner, 2014; Wheeler, Updegraff, & Thayer, 2010)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이성교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갈등해결 전략이 지배와 양보(장수지, 2010)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갈등해결 전략이 상황 특수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타인의 주장을 받아주는 방식이 통용된다 하더라도 연인관계에서 관계만족을 위해서는 서로의 바람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넓은 범위에서 조망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 상황을 생산적으로 다뤄 나가려는 생각을 하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이 인지적 정서적조절 과정을 거쳐 갈등대처 행동을 통해 이성관계 만족이라는 최종 결과에 관련된다는 거부민감성 모델을 통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상담 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연인관계에서 문제를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자는 만족스러운 관계경험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 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상담센터에 연애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과의 관계에 개입할 때, 상담자는 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거부민감성에 대해 우선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거부 민감성이 높은 경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거부하는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내담자와 현실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왜 거부에 민감해지는가에 대한 단

일한 설명은 어렵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던 경험이 성인기 심리적 적응과 거부민감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haleque, Uddin, Hossain, Siddique, & Shirin, 2019). 비록 어린 시절 경험이 지속적으로 타인 행동의 의도를 거부적으로 해석하게 한다 해도, 상담자와 반복적으로 정서적인 친밀감 속에서 안전을 경험하게 되면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믿음에도 변화가 생긴다. 어린 시절 극심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안전에 대한 충분한 신경회로망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들도 안전에 대한 상담자의 반복적 개입을 통해 일정시간이 지나면 안전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들이 이들이 어린시절의 경험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Vicario, Hudgins-Mitchell, & Corbisello, 2012). 따라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들 때, 그것을 상담 장면에서 안전하게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관계 경험을 제공하여 내담자의 거부 민감성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Ayduk, Mischel, & Downey(2002)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억을 하도록 요구한 후 자신이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한 경우와 상황과 맥락에 대해 생각하게 하여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게 하였다. 그 결과 민감성이 활성화 된 경우라도 그것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조절을 시도한 그룹에서 적대적인 반응이 적게 나타났다. 상담자는 인지적으로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적대적인 생각이나 정서를 줄이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두 사람에게 모두 힘들지만 함께 역경을 이겨내 보는 긍정

적 의미를 부여해 보고 두 사람이 각각 원하는 욕구를 알고 그것을 서로 추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끌어 상담자가 정서와 사고 행동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입할 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이성관계만족에 긍정적인 관련을 보인 갈등대처 전략은 통합이었다. 통합 전략은 갈등해결 전략 중에서도 양 편 모두의 강도 높은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거부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대의 자기 표현을 나를 거부하는 징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강도 높은 개입을 통해 갈등을 다뤄나가기 쉽지 않다. 따라서, 상담자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내담자들이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긍정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두 사람 모두 갈등을 다뤄 나가기에 앞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갈등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 성장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협력하고 그러한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리적 교육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 모델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이성교제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과의 상담에서 주목하여 개입할 변수들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도모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은 서울 특정 대학에 소속된 구성원들로서 전체 대학생의 경험으로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지역차를 반영한 표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연구 결과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동일 시점에서 심리적 변수에 대한 경험을 탐색한 횡단연구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관계 만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이성교제의 기간이나 갈등의 정도에 따라 갈등해결 전략의 채택이나 효과에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성교제 기간이나 갈등의 양상에 따라 매개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여성들이 선호하는 심리적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거부위협에 대한 반응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도 (Vescio et al., 2005)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거부민감성 관련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인관계 경험을 이성관계 경험에 한정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성소수자들의 연인관계 경험을 폭넓게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관계 경험을 탐색하는 독자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성교제에 한정하지 않고, 연인관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폭넓은 연구대상의 경험을 포괄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소희 (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지 (2016). 부모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 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나현 (2016). 미혼 성인남녀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인지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대학생 고민 1순위는 취업?... ‘주변관계’를 더 걱정했다”, *한국일보*, 1021, 2017.
- 박영은 (2017).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 (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레아카데미.
-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679-705.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민선, 노안영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연애관계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침묵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175-1192.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철아, 박기환 (2013). 유기 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1), 1-17.
- 조재숙 (2017). 연애경험에서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갈등대처 행동을 매개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중배 (2006). 글로벌시대의 갈등 관리: 한국인과 미국인의 문화 내 및 문화 간 갈등 관리 전략의 비교.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6, 168-201.
- 현소진 (2019). 대학생의 이성관계만족도,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성인애착불안 및 거부민감성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여주 (2013). 미혼 남녀의 정서조절과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에서 갈등대처방략의 매개효과와 갈등빈도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doi:10.1037//0022-3514.79.5.776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Ayduk, O., Zayas, V., Downey, G., Cole, A. B., Shoda, Y., & Mischel, W. (2008). Rejection sensitivity and executive control: Joint predictors of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 151-168.

- Ayduk, Ozlem & Mischel, Walter & Downey, Geraldine. (2002). Attentional Mechanisms Linking Rejection to Hostile Reactivity: The Role of "Hot" Versus "Cool" Focus. *Psychological science*, 13, 443-8. 10.1111/1467-9280.00478.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 78-102. [http://dx.doi.org/10.1207/S15328007SEM0901\\_5](http://dx.doi.org/10.1207/S15328007SEM0901_5)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10.1037//0022-3514.51.6.1173.
- Birditt, K. S., Brown, E., Orbuch, T. L. and McIlvane, J. M. (2010) Marital Conflict Behaviors and Implications for Divorce over 16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2, 1188-1204.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10.00758.x>
- Braithwaite, S. R., Delevi, R., & Fincham, F. D. (2010).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s*, 17(1), 1-12. <https://doi.org/10.1111/j.1475-6811.2010.01248.x>
- Derryberry, D., & Reed, M. A. (2002). Anxiety-related attentional biases and their regulation by attentional contro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225-236.
- De Dreu, C. K. W., Evers, A., Beersma, B., Kluwer, E. S. and Nauta, A. (2001), A theory based measure of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workplace. *J. Organiz. Behav.*, 22: 645-668. doi:10.1002/job.107
- Dodge & Somberg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Downey, G., Mougios, V., Ayduk, O., London, B. E., & Shoda, Y. (2004).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defensive motivational system: Insights from the startle response to rejection cues. *Psychological Science*, 15, 668-673.
- Erikson, E. (1971). *Erikson's psychological theory*. New York: Doubleday Anchor.
- Furman, W., & Shaffer, L. (2003). The role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P. Florsheim (E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 and sexual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pp. 3-2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arnefski, N., Kraaij, V. (2007).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features and prospective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adul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 141-14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ross, J. J. (2015). Emotion Regulat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Psychological Inquiry, 26*, 1-26.
- Hong, J. (2005). Conflict management in an age of globalization: a comparison of intracultural and intercultural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Global Media Journal, 4*(6), 169-202.
- Impett, E. A., Gables, S. L., & Peplau, L. A.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 Khaleque, A., Uddin, M., Hossain, K., Siddique, N., & Shirin, A. (2019).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in Childhood Predict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ulthood. *Psychological Studies, 64*. 10.1007/s12646-019-00508-z.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elly, C., Huston, T. L., & Cate, R. M. (1985). Premarital relationship correlates of the erosion of 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67-178.
- Karoly, P. (1993). Mechanism of self-regulation: A systems view. *Annual Reviews of Psychology, 44*, 23-52.
- doi:10.1146/annurev.ps.44.020193.000323
- Lantagne, A., Furman, W., & Novak, J. (2017). "Stay or leave": Predictors of relationship dissolution in emerging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5*(4), 241-250.  
<https://doi.org/10.1177/2167696817699750>
- Leggett, D. G., Roberts-Pittman, B., Byczek, S., & Morse, D. T. (2012). Cooperation,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Bridg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68*(2), 182-199.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 251-289). Oxford University Press.
- McNulty, J. K., & Russell, V. M. (2010). When "negative" behaviors are positive: A contextual analysis of the long-term effects of problem-solving behaviors on changes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4), 587-604.  
<https://doi.org/10.1037/a0017479>
- Metcalfe, J., & Mischel, W. (1999). A hot/cool-system analysis of delay of gratification: Dynamics of willpower. *Psychological Review, 106*(1), 3-19.  
<https://doi.org/10.1037/0033-295X.106.1.3>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 L. (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 933-938.
- Preti, E., Casini, E., Richetin, J., De Panfilis, C., & Fontana, A. (2018).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Rejection Sensitivity:



- Independent Contributions to Adolescent Self-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Assessment*, 10.1177/1073191118817866.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68-376. <https://doi.org/10.2307/255985>
- Rahim, A. M. (2002). Toward a Theory of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3(3), 206-23.
- Rahim, A., & Bonoma, T. V. (1979).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A model for diagnosis and intervention. *Psychological Reports*, 44(3, Pt 2), 1323-1344. <https://doi.org/10.2466/pr0.1979.44.3c.1323>
- Rahim, M. A., & Magner, N. R. (199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First-order factor model and its invariance across group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1), 122-132. <https://doi.org/10.1037/0021-9010.80.1.122>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 Scheeren, P., de Andrade Vieira, R. V., Goulart, V. R., & Wagner, A. (2014). Marital quality and attachment: The mediator role of conflict resolution styles. *Paidéia*, 24(58), 177-186. <https://doi.org/10.1590/1982-4327245820140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Wheeler, L. A., Updegraff, K., & Thayer, S. M. (2010). Conflict resolution in mexican-origin couples: Culture, gender,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4), 991-1005.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744.x>
- Vescio, T. K., Gervais, S. J., Snyder, M., & Hoover, A. (2005). Power and the Creation of Patronizing Environments: The Stereotype-Based Behaviors of the Powerful and Their Effects on Female Performance in Masculine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4), 658-672. <https://doi.org/10.1037/0022-3514.88.4.658>
- Vicario, M., Hudgins-Mitchell, C., & Corbisello, G. (2012). *The Foster Parent Survival Guide*. Cincinnati, OH: Finding Hope Counseling.
- Wilmot, W. W., & Hocker, J. L. (2001). *Interpersonal Conflict(6th ed)*. New York, NY: McGraw-Hill.

원고접수일 : 2020. 06. 23.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7. 28.

최종게재결정일 : 2020. 07. 28.

## Double mediation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n the associ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Eun Young Koh<sup>†</sup>**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Woosuk University  
Professor

**Mikyung Kim**

Student Counseling Center  
Kyung Hee University  
Counseling Psychologis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rejection sensitivity model might be applied to the link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by means of investigat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 total of 668 college students in Seoul (232 males, 436 females, mean age of 21.59 years [ $SD=2.08$ ])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illustrated that the adap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among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the integration and compromise strategies, among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had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other words, a direc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resulted in high rejection sensitivity, which was expected to generate low satisfaction in dating relationship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use of these two strategies—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th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could bring positive effects in terms of the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former helped couples to see situations more broadly and increase positive perceptions, while the latter solve their problems each other.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their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collage students